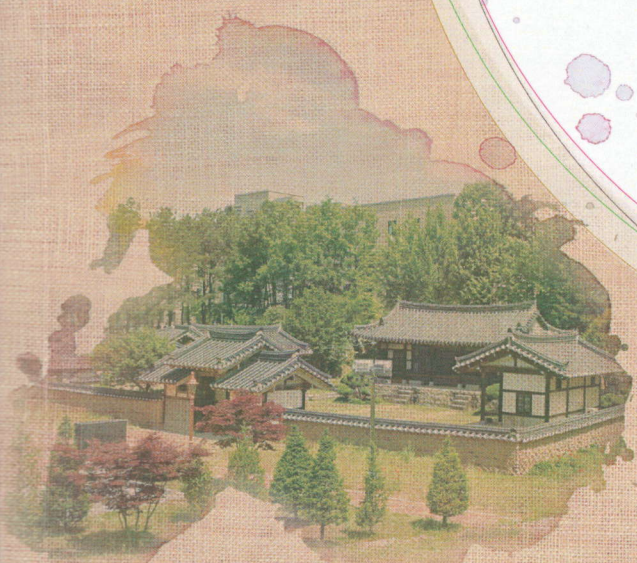


2019년 BK21플러스
공동국제학술대회

New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Resources

지역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활용



기간 2019년 1월 17일(목) ~ 1월 18일(금)

장소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주최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사업팀

◆ 목 차

지역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활용

- 초역자원(超域資源)으로서의 이민문화 - 미국의 재팬타운, 일본의 아메리카마을의 사례
: 카와카미 사치코(일본, 교토외국어대학) 11
- 「초역자원(超域資源)으로서의 이민문화」에 대한 토론문
: 김덕목(한국, 한국외대) 16

-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활용 방향
: 김공숙(한국, 안동대) 19
-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활용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신호림(한국, 안동대) 43

- 몽골에서 '며느리 구하기(구혼) 풍속의 전통과 현대화 양상
: R. 출템수렝(몽골, 몽골국립사범대학) 47
- 「몽골에서 '며느리 구하기(구혼) 풍속의 전통과 현대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 이선아(한국, 서울대) 62

- 두만강 연안 조선족 전통마을의 민속문화적 가치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 박금해(중국, 연변대) 65
- 「두만강 연안 조선족 전통마을의 민속문화적 가치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한 토론문
: 이상현(한국, 안동대) 78

- 김부대왕 전승의 유형과 의미
: 이용범(한국, 안동대) 81
- 「김부대왕 전승의 유형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 김형근(한국, 동아대) 93

- 청소년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 고려의 전통 풍습
: 박타티야나(카자흐스탄, 카자흐대) 97

청소년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 고려의 전통 풍습

박타티야나(카자흐스탄, 카자흐대)

Abstract

This report talks about the traditions of the Koreans of Kazakhstan, which brought up young people. Tradition is a conscious idea of our roots. Traditions that have come from ancient times allow you to learn about the roots of nation and teaches young people how to communicate with people, attitude to society and family relations. Traditional customs of Koreans of Kazakhstan are the traditions which have come from ancient times and traditions which have arisen with joint residence with other people. Over time, some customs change according to our time, others die out.

1. 서론

한 민족의 문화는 몇 세기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온 그 민족 고유의 경험이며, 그 민족 고유의 경험이 바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나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 체계를 말한다. 전통 풍습 역시 몇 세기에서 걸쳐서 이어져 내려온 경험이며, 각 가정에서 전통 풍습을 대대로 전해 주었다. 다르게 말하면 집에서 전통 풍습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민족 고유의 전통을 교육 받게 되었다. 러시아 교육가 K.D. Ushinsky는 '교사의 성공은 전통과 민족의 성격에 의한다.'라고 말했다. K.D. Ushinsky 의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언어와 전통 풍습을 통하여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예의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¹⁾ 이런 의미에서 전통은 아주 중요한 민족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민족의 가치를 후 세대에 전한다는 의미에서 전통 문화, 전통 의상, 전통 놀이, 전통 음악과 전통 풍습이 생겼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전통 문화는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이다.²⁾ 전통 의상은 민족 고유의 문화 특색을 가지고,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어 온 옛 옷을 말한다. 전통 놀이는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생겨난 풍속에 따라 행해지고 전해 내려오는 놀이다. 전통 음악은 예로부터 계통을 이루어 전하여 내려오는 음악이다. 전통 풍습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속과 습관이다. 전통 의상, 전통 음악, 전통 놀이

1) Ushinsky K. D. about nationality in public education // His. Selected works: in 4 book . M. 2005. kN. 1. P. 127.

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서울, 1999.p.5370

와 전통 풍습이 민족 문화의 가치이다. 온 세계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문화를 존중한다. 특히 문화의 가치 중에서는 전통 풍습이 청소년을 교육할 때 특별한 가치이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풍습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민족의 전통이 다양하지만 가족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 옛날에는 한 집에서 3대까지 같이 살아서 풍습을 제대로 전해 주었다. 전해준 중요한 풍습 중 하나는 가족 관계이다. 가족 관계에서 아이는 말을 배우면서 가족을 부르는 호칭도 배운다.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할 때 경어법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이가 하는 말에 따라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교육 시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윗사람들이 자주 쓴다. 그리고 윗사람, 특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예절을 가르쳤다.

전통 풍습은 제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 관계와 가정에 대한 풍습은 가족 풍습이라고 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법에 대한 풍습은 행사 풍습, 명절에 대한 풍습은 명절 풍습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민족이지만 풍습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풍습이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이유는 한 민족이 사는 지역이다. 한 지역에 한 민족만 살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은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 지역이지만 여러 민족들이 사는 곳이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할 때 그 민족의 문화도 서로 섞인다. 이 경우 한 민족의 풍습은 많이 변화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 풍습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현재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한다. 시간이 갈수록 전통 풍습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자기 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사라진 전통 풍습의 문제는 현실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요즘 전통 풍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쓰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독립국가연합 (CIS)에서 사는 고려사람의 전통 풍습.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사는 고려사람의 전통 풍습도 점점 변하고 사라지지만 고려 전통 풍습을 소중히 여긴다. 고려 전통 풍습은 고려 사람들이 원동³⁾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많이 변했다. 1937년부터 고려 사람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1937년 가을에 제일 먼저 수많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고 남은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 전통 풍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다. 노인들은 '자기 뿌리를 알고 싶으면 전통풍습과 언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청소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전통 풍습을 가르쳤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전통 풍습 중에서 먼저 배우는 전통 풍습은 가족 풍습이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집에 노인과 청소년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을 부르는 호칭과 인사법을 제일 먼저 배운다. 예를 들면 윗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자기 자리에서 꼭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성인이 앉고 허락한 후에 청소년들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남자들이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 아랫사람은 두 손으로 악수를 해야 했다. 여자들은 악수 없이 인사를 하지만 가끔 남자 성인이 여자와 악수할 때 여자는 두 손으로 악수를 했다. 그리고 어른에게 어떤 것을 드릴 때도 두 손으로 드렸다.

3) '원동' 표준어로 [극동]

그런데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악수 할 때 뒷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말하면 청소년들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꼭 들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른과 청소년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생기기도 한다.

잔치를 할 때 잔칫상에 어른만 앉고 청소년들은 다른 집이나 방에서 식사를 했다. 잔칫상에 손님을 앉힐 때도 오른쪽에 남자들을 앉히고 여자들을 왼쪽에 앉혔다.⁴⁾ 왜냐하면 오른쪽은 남자 쪽이고 왼쪽은 여자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집 크기가 크면 남자들이 앉는 방과 다른 방에 여자들을 위한 잔칫상을 차려 놓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계시는 방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심부름을 할 때는 들어올 수 있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항상 남자 쪽부터 시작한다. 옛날에는 고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자와 뒷사람에게 드렸고 나머지를 여자들이 나눠 먹었다. 청소년들에게는 고기를 거의 안 주었거나 뼈 있는 고기를 주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이가 튼튼해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시에서는 예전에 굶주렸던 시기에 비둘기를 잡아먹었다. 어떤 집에서는 비둘기 고기를 성인과 소년들만 먹고 여자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주지 않은 이유가 좀 이상하다. 그 이유는 여자 아이가 어렸을 때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비둘기 고기를 모두 먹었다. 옛날에는 남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시절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일을 나눌 때도 여자아이가 일을 많이 했고 남자아이는 일을 적게 하거나 놀았다. 각 지방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가족 풍습을 보면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뒷사람이 계시는 곳에 심부름이 없을 때 들어가지 못 한다. 뒷사람이 말할 때 청소년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야만 하며 동의하든 반대하든 말하지 않아야 했다. 가끔 어른들도 실수하지만 어른의 말씀대로 꼭 해야 한다.

옛날에는 평상시에 상을 차릴 때 먼저 뒷사람(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차려 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상을 차려 냈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같이 먹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식구들이 한 상에서 식사한다. 식사할 때 뒷사람이 손가락을 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아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음식을 뒷사람에게 드린 후에 아이에게 주었다. 어른들이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그 대화에 끼어들면 상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뒷사람의 식사가 끝난 후에만 모두들 상에서 나갈 수 있었다.

최근에는 집집마다 가족 풍습도 달라졌다. 어떤 집에서는 한 방에서 뒷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그런 상황이 금지이다. 어떤 집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주무시면서 식사까지 하는데 다른 집에서는 부부가 한 방에 주무셔도 식사는 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뒷사람에게 절대로 거역하지 않도록 했다. 거역한 아이는 부모에게서 벌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풍습은 변하지만 중요한 풍습은 변하지 않고 때때로 소중한 것을 전해 주기도 한다.

오늘날까지 내려온 풍습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4) Tsoi E. G., Yang V. S. Korean customs and traditions. Almaty, 2007, p.51

- ①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인사 하거나 물건을 드릴 때, 혹은 윗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때는 무조건 두 손으로 해야 한다.
- ②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같이 술을 마실 때 아랫사람은 고개를 돌려서 마신다.
- ③ 윗사람이 방에 들어갈 때 아랫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
- ④ 식사할 때 윗사람이 숟가락을 든 후에 아랫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다.
- ⑤ 음식을 드릴 때도 윗사람부터 시작한다.

위 내용에 따라 가족의 풍습은 청소년들에게 사람관계에 대해 가르쳤다.

다음 전통 풍습은 행사의 풍습이다. '행사'라는 말은 고려인들이 잔치로 말하고 '구일'이라고 말한다. 그 말에 따라서 행사의 풍습이 아니고 '구일의 풍습'이라고 말하면 좋겠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은 이주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구일의 풍습을 잘 지킨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고려인네 가지 상(床)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상은 돌잔치이다. 한국에는 돌잔치를 하기 전에 백일잔치를 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백일잔치를 안 한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 기간이 지나면 친척들이 그 집에 놀러 올 수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한다. 고려인들은 돌을 '똥이'라고 부른다. 똥이⁵⁾ 날 아침에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아이가 상을 보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때 아이에게 새 옷을 (한복이 있으면 한복을 입힌다.) 입히고 상 앞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아이를 앉힌다. 상을 보는 것을 한국에서 돌잡이라고 말한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선택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찰떡 세 그릇, 쌀 한 그릇, 빨간 팥 한 그릇, 하얀 실이나 색실과 바늘, 가위, 책, 색연필이나 볼펜을 놓는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이 그 상 위에 돈을 놓는다. 아이는 세 번 물건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 물건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를 말한다. 쌀과 찰떡을 선택하면 집에서 음식이 풍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빨간 팥을 선택하면 홍역을 쉽게 치른다고 한다. 책과 연필을 선택할 때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자기 지식으로 번다고 한다. 가위와 바늘을 가지면 바느질을 잘한다고 하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고 한다. 그리고 돈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고 말한다. 물건을 세 번 선택하는 중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상을 본 후에는 그 돈을 체에 놓고 부모에게 준다. 체의 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거를 때 문제 있는 것은 거르고 필요한 것은 체 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돈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며 돈이 계속해서 생기라는 의미이다. 상을 본 후에는 온 손님들이 집에 돌아가고 저녁 5시쯤 돌잔치로 간다. 옛날에 손님들이 부조로 옷이나 돈을 가져 왔는데 요즘은 돈을 선물한다. '똥이'나 잔치는 모두 집에서 진행했다. 그래서 '똥이'를 밤늦게까지 하기도 했다. 보통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오는데 '똥이'에 못 오는 사람이 '똥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조를 전해 주었다. 그리고 부조를 보낸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거나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음식을 갖다 주었다. 보낸 음식 중 찰떡하고 짐평(끼지떡)은 꼭 보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와 여러 가지 채(반찬)을 보냈다. 옛날부터 '똥이'나 잔치를 끝낸 후에 '구일'(한국에서 잔치)의 음식은 적게 남겨나 다 먹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음식이 부족하면 나쁜 소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구일'의 음식은 항상 많이 준비했다. 다른 날에도 그 '똥이' 집으로

5) '똥이' [돌시]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하러 가기도 한다. '구일'을 진행할 때 보통 술을 마신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감지'를 마실 수 있다. '감지'는 누룩에서 만든 음료수이다. 그 '감지'로 짐평을 만든다. '감지'의 맛은 맥주의 맛과 비슷하다. '똥아'에서 들어온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아이를 교육 시켰다. 요즘에는 '똥아'를 레스토랑에서 하고 부조로 들어온 돈은 은행에 예금한다. 보통 그 돈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고 남은 돈을 부모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쓴다. '똥아'는 첫 번째 '구일'이기 때문에 가정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꼭 진행한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누가 죽어도 아이는 상을 보게 했다. 다만, 그런 상황일 때 '똥아'를 크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상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상을 본 후에 음식을 대접하는데 옛날에는 새 손님이 오면 상위에 있는 반찬을 새 반찬으로 바꿨다. 그래서 상을 차리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풍습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 옛날에 찰떡을 나무망치로 치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필요했다. 원래 젊은 남자들이 찰떡을 쳤는데 찰떡을 치는 사람들을 잘 먹였다. 그 사람들을 먹일 때 꼭 닭고기와 돼지고기, 술을 대접했다. 이런 풍습은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풍습이다. 그래서 찰떡을 잘 치는 사람을 마을의 사람들이 존경했다. 그리고 찰떡을 치는 방법을 때때로 전해 주었다.

두 번째 상은 '잔치'이다. '잔치'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말한다.⁷⁾ 잔치를 하기 전에 '혼시말'을 한다. '혼시말'은 한국에서 약혼식을 말한다. 원래 '혼시말'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과부이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다. '혼시말'의 아침에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 그리고 신랑의 집에서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간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고려인들은 '사둥아'라고 부른다. '사둥아' 중에서 큰 '사둥아'를 선택하는데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갈 때 삶은 수탉 한 마리와 술을 가져간다.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부모가 '사둥아'와 같이 한 상에서 서로 소개한 후 신부와 신랑이 약혼을 한다. 그때 '친치'를 언제 할지, 잔치를 언제 할 지 미리 결정한다. '친치'는 한국에서 중매라고 한다. 원래 아침에 '혼시말'을 하고 저녁 6 시에는 '친치'를 한다. 잔치는 두 가족 상태를 보면서 날짜를 뽑거나 점을 친 후에 날짜를 잡는다. '친치'를 할 때 음식은 신부의 집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혼시말'에 손님 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사둥아' 수도 결정한다. 왜냐하면 신랑의 '사둥아' 수에 따라서 잔치 때 신부의 '사둥아' 수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랑의 '사둥아'가 7명이면 신부의 '사둥아'는 10명 쯤 가도 된다. 그리고 '사둥아'를 선택할 때 과부와 이혼한 사람은 절대 고르지 않는다. 큰 '사둥아'는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선택하고 없으면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친치'를 할 때 두 가족의 부모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척들도 소개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친치'는 작은 결혼식이다. '친치' 날 밤에 '구일'이 끝난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와 같이 잔다. 그래서 모든 고려인들이 친치를 진행하고 신부와 신랑이 같이 한 가족으로 결혼식을 없이 오래 동안 살면서 아이까지 낳는다. 가끔 아이들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결혼식을 하고 다음에 아이들의 결혼식을 한다.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다른 민족들이 고려인 풍습이라고 생각했다. '친치'를 할 때 신랑의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단'을 가져온다. '예단'은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이 보낸 선물이다. 각 선물은 포장해서 누가 선물을

6) 감지=감주

7) Li B. S., Nam V. V.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ashkent, 2013. p. 113.

8) '친치'는 약어이다. '친척과 잔치'를 줄인 말이다.

드리는지 적혀 있다. 왜냐하면 잔치를 한 후에 '예단을 준 사람에게 다시 선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예단을 할 때 비단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금으로 만든 제품을 드린다. '예단은 신부에게 큰 부담이다. 왜냐하면 선물을 할 때 성에 따라 선물해야 한다. 남자에게 셔츠 한 벌과 손수건 한 장을 드리고, 여자에게 천감 3미터와 속옷 한 벌과 손수건 한 장을 드린다. '예단이 신부에게 큰 부담이니까 신부의 부모들이 '예단을 없이 하자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단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예단을 받으면 꼭 대답해야 한다.

잔칫날 아침에 신랑이 '사동아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간다. 신부의 집에서 신부와 신랑이 만난 후에 신부의 부모에게 술을 따르고 절을 한 번 한다. 그 절은 신부와 신랑이 한 가족으로 되어서 인사한다는 뜻이고 딸이 다른 집으로 간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신부의 어머니가 여자 '사동아'에게 천에 쓴 거울을 준다. 여자 '사동아'는 가져온 천으로 다시 그 거울을 싸서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거울을 전해준다. 그리고 신랑의 다른 '사동아'들 중에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부의 '잔칫감'을 들고 신랑의 집까지 갖다 준다. 그런데 '잔칫감'을 들고 오기 전에 여자 '사동아'는 가져온 천으로 다시 각 '잔칫감'을 싸다. '잔칫감'을 드는 풍습도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잔칫감'을 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옛날에 신부와 신랑이 한 마을에 살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 그 때 신부의 친척들과 신랑의 친척들이 같이 한 집에서 놀았다. 잔치의 음식을 나누어서 준비했다. 그렇게 할 때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쉬웠다. 신랑의 집에서 찰떡과 짐평을 만들고 반찬은 나누어서 했다. 혹시 따로 하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오전에 하고 신랑의 집에서 저녁에 했다. 잔치를 따로 할 때 두 가족의 부모들은 자기 잔치에만 참석했다. 예를 들면 신부 잔치에 신부의 친척들이 모두 오고 신랑은 자기 '사동아'와 같이 참석했다. 다른 신랑의 친척들은 못 오고 부모도 올 수 없다. 신랑의 잔치에는 반대로 신부의 친척들과 부모가 못 가고 신부의 '사동아'만 참석했다. 그래서 두 '구일'을 통일할 때 신부와 신랑이 기뻐했다. 요즘은 잔치를 합쳐서 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안 하고 레스토랑에서 한다. 잔치 음식은 옛날처럼 떡을 신랑의 집에서 하거나 주문하고 반찬은 나누어서 한다. '예단도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신랑 집은 '예단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단을 한다. 그 이유는 신랑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혼부부는 신랑의 집까지 자동차로 간다.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차문 앞에 쌀 한 포대를 놓는다. 그리고 차부터 집 문까지 천을 깎는다. 천으로 깎은 길 양쪽에는 신랑의 친척들이 서 있다. 신부가 쌀 포대와 천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두들 보고 있다. 쌀 포대를 발로 밟고 천을 밟지 않고 지나 가면 신부의 가족이 전통 풍습을 잘 알고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다고 말한다. 혹시 신부가 반대로 하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요즘은 그 풍습을 할 때 신랑이 차에서 먼저 내리고 신부를 안아 들고 같이 천을 건너간다.

잔치가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신랑의 집에서 온 친척들이 다시 모인다. 그 날 아침에 신부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한다. 옛날에는 밥술이 없어서 가마에서 밥을 했다. 사람들은 그릇에 담긴 밥의 모양을 본 후 밥맛을 보면서 집안일을 잘 하는지 파악한다. 밥그릇에 밥이 붙어 있거나 밥 모양이 땅을 파는 모양 같으면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안 받은 여자라고 했다. 그리고 밥에서 탄 맛이 나거나 설

익었으면 신랑의 집이 나쁜 집주인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부들이 이런 풍습에 대해 겁을 먹었다. 요즘에는 밥술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신부가 '여돈'을 준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선물을 줄 때 먼저 절을 하고 선물을 드렸다. 친척들이 20명이면 20번 절을 한다. 다음에 다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할 때 신부가 손님을 대접했다.

세 번째 상은 환갑이다. 사람들은 예순 살이 돌아올 때 생일을 크게 진행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려인들은 환갑을 크게 진행했다. 옛날에 '구일'을 집에서 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요즘 모두 '구일'을 레스토랑에서 하니까 초대할 사람만 온다. 환갑잔치는 보통 오후 5시나 6시에 시작한다. 환갑 상 앞에 생일이 된 사람과 부인이 앉고 가까운 친구들도 양쪽에 앉는다. 축하하는 말을 자식들부터 시작한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자기 식구들과 같이 축하하면서 절을 한 번 하고 다음 딸이 자기 식구들과 같이 축하한다. 그런데 결혼 안 한 아이들이 함께 축하하고 절을 한다. 축하하기 전에는 꼭 부모에게 술을 따라 드린다. 그 다음에 친척들이 축하하면서 절을 한다. 그러나 생일을 받는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축하할 때는 절을 안 한다. 그런데 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절을 한다. 환갑잔치 음식의 종류가 뚝이의 음식과 잔치 음식이 같다. 왜냐하면 '세 구일' 이 다 좋은 '구일'이니까 국수(한국에서 국수)를 꼭 하고 찰떡과 짐평을 만들며 부조로는 돈을 준다. 원래 환갑을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한다. 옛날부터 고려인들은 생일과 잔치가 부모들의 부담이고 환갑과 제사는 자녀들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부조를 전해 준 사람에게는 음식을 꼭 보낸다. 다음으로 칠순잔치를 크게 진행하지 않는다.

네 번째 상은 장례와 제사이다.) 옛날에는 어떤 집에서는 장례라고 말하고, 어떤 집에서는 장사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장례라는 말을 '보호로느'라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제사는 그대로 쓴다. 그래서 장례와 장사라는 말이 오늘날 고려인 사회에서 사라졌다. 장사와 제사는 한 '구일'로 말하는데 기쁘지 않는 구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식구들이 윗사람을 부르고 장사를 준비한다. 제일 먼저 윗사람이 고인에게서 벗겨져 있는 옷을 가지고 집 지붕이나 집 구석에서 그 옷을 흔들면서 '훈이'를 부른다. 그때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인을 물수건으로 닦고 준비한 옷을 입힌다. 그 다음에 관이 없으면 '칠성널'(=칠성판)에 눕힌다. 그리고 고인을 눕힌 자리를 흰 천으로 가르고 작은 상을 놓는다. 상위에 삶은 닭 한 마리, 술, 삶은 계란 3-5개, 돼지고기 3-5덩어리와 밥 한 그릇을 놓는다. 상 밑에는 빈 그릇을 놓는다. 손님들이 절을 하기 전에 돈을 상 위에 놓고 술을 잔에다가 따르고 절을 한 후에 빈 그릇에 붓는다. 그릇이 가득차면 술을 버린다. 고인이 '칠성널'(=칠성판)에 누워 있을 때 절을 한 번 하고, 관에 있을 때 세 번 한다. 첫날부터 고인 머리 옆에 밥 세 그릇을 삼일 동안 놓아두고 묘에 가는 길에 그 밥을 버린다. 흰 천에다가 명정을 붙인다. 옛날에는 명정을 한자로 썼는데 요즘은 한글로 쓴다. 삼일 아침에 상을 다시 차려 놓고 모두들 마지막 절을 한다. 그 후에 관을 머리가 앞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들고 나간다. 명정이 관 앞에 나가고 흰 천을 절반으로 찢는다. 다음에 그 천으로 관을 파낸 자리에서 내린다. 밖에는 관을 차 앞에 놓고 작은 상을 세운다. 상 위에 삶은 닭 한 마리와 술과 술잔이 있다. 장사를 하는 사회자가 술을 술잔에다가 따르고 축을 말한 후에 그 술을 세 번 땅에 버린다. 그 다음에 관을 차에 실은 후에 관양 쪽에서 식구들을

9) <http://koreilbo.com/index.php/news-social-ru/1001-korejtsy-nezavisimogo-kazakhstanana-10>

앉는다.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묘까지 간다. 묘가 멀면 다른 사람들이 고인 집에서 조금 걸어서 가다가 차로 묘까지 이동한다. 관을 허방에 내리기 전에 친척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린다. 관을 내린 후에 명정을 관위에 놓는다. 고인의 가족 중에 아들이 있으면 글자를 보이게 놓고 딸만 있으면 명정을 뒤집어 놓는다.

그 풍습의 뜻은 집안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딸만 있는 집은 집안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묘를 만든 후에 울타리를 친다. 그 다음에 묘 오른쪽에 작은 상을 만들고 삶은 닭과 술을 놓고 큰 아들이나 남자 어른이 술을 술잔에 붓고 절을 한 번 하고 술을 땅에 붓는다. 그 후에 묘 앞에 상을 차린다. 상 위에 삶은 닭, 돼지고기 3-5덩어리, 계란 3-5개, 튀긴 물고기 3-5조각, 술, 밥, 과일, 과자와 사탕, 지름구비(기름에 튀긴 떡) 3-5개를 놓는다. 자식들이 차례로 술을 붓고 절을 세 번 한 후에 다른 친척들과 친구들이 한다. 카자흐스탄에는 150여 민족이 사니까 '구일'을 할 때 민족은 상관없이 모두 온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고려인처럼 절을 한다. 절을 한 후에 닭고기, 튀긴 물고기, 계란, 돼지고기, 지름구비를 한 개씩 묘 옆에 놓고 다른 음식도 조금씩 놓는다. 그 다음에 묘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다. 장사를 할 때 여자들이 흰 머릿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팔에 흰 색이나 검은 상장을 맨다. 묘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머릿수건과 상장과 고인의 옷을 불에 태운다. 그런데 고인의 가족 중 여자들은 머릿수건을 삼 년 제사까지 그대로 두고 제삿날에 다시 쓴다. 시집간 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계시면 머릿수건을 태운다.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간다.

원래 식사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이 묘에 가서 상을 차린다. 그때부터 제사 1년이 지나갔다고 한다. 그러므로 2년 동안 제사를 크게 진행한다. 2년 동안 손님을 초대하고 삼년 제사를 할 때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집이나 레스토랑에서 한다. 마지막 제삿날에는 묘에 상을 차리고 절을 한다. 집에 가기 전에 여자들이 흰 머릿수건을 태운다. 그리고 삼년 동안 고인의 생일날에도 묘에 가서 상을 차린다. 옛날에 묘를 일 년 동안 생일날 외에 세 번을 간다. 한식, 단오와 추석날에 갔다. 노인들이 한식은 아침 식사이고 단오는 점심 식사이고 추석은 저녁 식사로 불렀다. 그래서 세 번 묘에 갔다. 요즘은 집집마다 묘에 가는 것이 다르다. 어떤 집은 한식날에 한 번 가고, 어떤 집은 한식과 추석에 간다. 보통 한식에는 모두들 묘에 간다. 그 이유는 한식이 양력 달력으로 적혀 있어서 모두들 달력을 보면서 갈 수 있다. 다른 날에는 음력 달력이어서 힘들었지만 요새는 양력 달력과 음력 달력이 같이 있고 기념일도 적혀 있어서 편리하다. 요즘은 세 번 가는 집이 드물다.

'구일'의 풍습은 지방마다 조금 다르지만 풍습의 기본은 지킨다. '똥이'를 할 때 아이가 상을 보게 한다. 상을 볼 때 기본적인 물건들은 찰떡, 쌀, 빨간 팥, 실, 바늘, 가위, 책과 볼펜이다. 잔치의 풍습을 할 때 순서대로 한다. 제일 먼저 약혼, '친치'를 한 후에 잔치를 진행한다. 환갑을 받는 사람에게 꼭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 '똥이', 잔치와 환갑의 '구일'은 기쁜 '구일이니까 찰떡과 국수를 한다. 장사를 3일 동안 진행하고 상을 차린다. 그리고 삼 년 동안 제사를 진행한다. 장사를 할 때 지름구비를 하고 시래기차물(한국의 시래기국)을 끓인다. 시래기차물은 두부와 같이 드린다. 그 다음 명절날에 묘를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옛날부터 명절도 지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명절을 지내는 풍습도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지내는 전통 풍습은 양력으로 4월 5일에 한식이 있고, 음력 5월 5일 오월 단오와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있다. 소련 시대에 민족 명절을 다른 명절보다 즐겁게 보내지 않았다. 이주한 시기부터 고려인들이 민족 명절 아침에 먼저 묘에 가서 상을 차리고 절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출근했다. 민족 명절에는 고려인들이 묘에 가니까 '산일'이라고 했다. 보통 한식은 마을 사람들이 농촌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마을에 사는 고려인들은 단오를 즐겁게 보냈다. 아침에 묘로 갈 사람들이 조상에게 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한 후에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그 음식을 먹고 놀거나 마을 사람과 같이 놀았다. 예로 내려온 풍습처럼 남자들이 씨름을 하고 여자들이 그네를 탔다. 단오 명절에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추석도 한식처럼 묘에만 방문했다. 그러나 집집마다 풍습이 달라졌다. 어떤 집은 자식들이 부모 집에 모여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놀았다. 부모가 없으면 나이가 위인 사람의 집에 온 친척들이 모여서 추석을 진행했다. 명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명절은 설날이다. 설날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처럼 아침에 지내지 않고 저녁에 지낸다. 설날은 고려인들이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서 지낸다. 설날에 만드는 음식은 고기만두, 옥수수죽, '오구래죽'이다. '오구래죽'은 감자 녹말가루로 알을 만들고 팥으로 만든 국에다가 넣고 끓인 것을 말한다. 고려인들은 명절에 화투를 했다. 노인들이 자주 화투를 시작했다. 그리고 보통 화투로 점도 보았다. 요즘도 민족 명절 중에서 설날만 즐겁게 보낸다. 다른 명절날에는 묘를 방문한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설날에 묘에 가지 않는다.

3. 결론

각 풍습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었다. 가족 풍습은 사람관계를 가르치면서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가르친다. 가족풍습은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만든다. '구일' 풍습은 사람에게 중요한 상 네 가지(뉘이, 잔치, 환갑, 장사와 제사)를 가르친다. 명절 풍습은 청소년에게 전통 명절을 알려준다. 그리고 중요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묘에 가는 법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명절에 어른들이 꼭 묘에 가서 묘석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한식과 추석을 '산일'로 생각했다. 설날에는 아이들이 성인에게서 선물을 받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명절이었다. 명절 풍습은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는 것과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것을 청소년에게 보여준다. 요즘은 예로부터 내려온 풍습이 사라지고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풍습은 때때로 예전부터 조상들이 지켜온 풍습을 전해준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전통 풍습은 한국 전통 풍습과 다르지만 고려인들은 민족 풍습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Li B. S., Nam V. V.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ashkent. 2013. p. 113.
- Tsoi E. G., Yang V. S. 'Korean customs and traditions.' Almaty, 2007, p. 51
- Ushinsky K. D. 'About nationality in public education // His. Selected works: in 4 book . M. 2005. kN. 1. P. 127.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서울, 1999, p. 5370
- <http://koreilbo.com/index.php/news-social-ru/1001-korejtsy-nezavisimogo-kazakhstan-10>